

마리아 아네테 수녀의 예술적 여정과 유산을 경축한 전시회

브라질 파소폰도 과달루페 성모 관구



파소 폰도 공동체는 마리아 아네테 수녀(헤르타 베커)의 놀라운 예술적 유산을 인정하며 100 세 생일 전야에 이를 기념했습니다. 수녀가 그린 작품의 섬세함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관대히 나누는 모습으로 파소 폰도 시는 수십 년간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나오메 토케에서 1926년 8월 27일에 태어난 수녀는 노트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1949년에 첫 서원을 했습니다. 수도 생활 초기에는 주(州)의 곳곳에 있는 학교에서 화학, 생물, 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술적 재능을 키우도록 고무되어 그림을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상의 표현으로 삼아 시각 예술 분야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또한 미술 교사가 되어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녀는 꽃, 풍경, 기타 자연물을 그리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창조를 인식하도록 초대하는 관상적 정신을 반영합니다.

마리아 아네테 수녀의 삶과 작품을 기리기 위해 파소 폰도 콜레지오 노트담은 7월 2일부터 14일까지 파소 폰도 쇼핑 센터에서 **삶 속의 꽃: 길 위에서 아름다움을 남기는 한 세기**라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40점 이상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많은 작품이 콜레지오 노트담 홀에 오랫동안 전시되어 학생들과 가족들, 방문객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들입니다. 수녀는 미술 작품들과 교직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회화의 기술을 배우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민감성과 인내, 미술에 대한 사랑도 심어주었습니다.

교육과 예술을 통한 충실한 봉사의 한 세기를 거치며 마리아 아네테 수녀는 그림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유산을 세웠습니다. 수녀의 작품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관상으로 초대하며 하느님의 은사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사용될 때 얼마나 피어날 수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수녀의 삶은 젊은 세대가 창조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좋으심과 현존의 반응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줍니다.